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까까까까(까다롭고 까탈스러우며 까칠하면서도 까리한 모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2019	이름	차**
	학번	2017	이름	황**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주제 :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가치와 책임</p> <p>- 도서 : <보이지 않는 여자들> ↳ 3장(힘든 금요일 : 돌봄 노동) 12장(공짜로 착취 가능한 자원 : 노동의 가치) <젠더와 사회> ↳ 3부 복지(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_송다영)</p> <p>- 토의 내용</p> <p>이슬 : 나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가사노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멸시했다. 그리고 돌봄 노동에 있어서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비교적 더 힘든 일인데, 대부분이 여성이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어 충격이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여성은 가정과 일 중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소득이 더 많으므로, 남성이 경력단절 없이 더 오래 일을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다시 일에 복귀하기보다 파트 타임으로 집안일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사적인 일로 치부할 뿐,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 직원의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일을 하는 여성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여성의 무급노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짐을 느꼈고, 비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p> <p>경민 :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성이 저임금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다. 예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가 여성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약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여성이 약해지고 통제된다는 것이 떠올랐다. 이것도 가정폭력의 구조와 비슷하게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려는 움직임과 사회는 여성을 자꾸 집 안의 영역으로 들여보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 <p>현경 : 돌봄 노동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까지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실한 것을 깨달았고, 아이를 가진 여성이 얼마나 차별받으며 살고 있는지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p>							

레는 2018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만든 정책이다. 출산휴가를 받을 때 사회보장 연금의 일부를 당겨 받고, 그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수령을 늦추는 식의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문제점은 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느라 유급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의 연금 수령액을 더 줄이는 결과를 만든다. 더욱이 평균적으로 예상수명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은 노년기에 더 심각한 빈곤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경민 : 이 문제는 매우 깨기 어려운 성별분업과 국가적 구조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여성은 계속 위기 때마다 아니 일상에서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 안의 일은 여성의 일로 길러져왔고, 남겨져 있었고, 해왔다. 이 문제는 기계발달도 해결하지 못했다. 청소기나 세탁기 발명된 건 노동시간의 감소이지 주체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는 것이 아닌가. 뭔가 쓸쓸했다.

- 토론내용

<무급노동을 여성과 남성이 절반씩 분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여성을 이중노동 및 독박 무급노동에서 벗어나게 할 것 인가.>

이슬 : 194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자신들의 무급노동을 밝히고자 '여성이 일하지 않는 날'을 지정하여 파업을 진행했다. 여성이 매일같이 그림자처럼 했던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하루 만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도 파업의 날을 지정하여 성별분업을 깨보려는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경민 :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해야 한다. 여성으로 길러진 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의 맥락에서 광고매체가 남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켜 집안에서의 여성의 발언의 영향력을 확보해 분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경 : 동의한다. 아이들은 5살까지는 성별에 대해 분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6살부터는 여자의 일, 여자의 것, 남자의 일, 남자의 것 등 성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배우게 된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2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까까까(까다롭고 까탈스러우며 까칠하면서도 까리한 모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9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2019	이름	차**
	학번	2017	이름	황**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주제 : 여성의 몸과 관련된 문제 (성 상품화 & 다이어트)</p> <p>- 도서 : <보이지 않는 여자들> ↳ 8장(남자에게 맞는 원 사이즈 : 사회적 표준) <젠더와 사회> ↳ 2부 몸(신자유주의 시대 경쟁하는 몸_김양선), 미디어(아이돌 공화국 : 소녀 산업의 지구화와 소녀 육체의 상업화_김예란)</p> <p>- 토의 내용</p> <p>경민 : 남성들이 정하거나 남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을 끼워 맞춰왔음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다. 나도 피아노를 배워봤지만, 내 손이 작아 피아노를 치기 힘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사실 피아노 건반의 사이즈는 남성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만으로 설계된 사회였던 것이다.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다. 그리고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의 몸과 그런 환상과 더러운 욕구들이 여성 아이돌의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여자 아이돌들에게 애교를 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불편했다. 이런 행위를 왜 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국 남성에 맞추어진 어떠한 사회적 표준이나 욕망의 반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이슬 : 피아노와 더불어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핸드백 산업이 발달한 원이다. 여성의 옷은 주머니가 없거나 모험만 있을 뿐 보기에만 좋고 기능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옷이 많다. 재질도 남성의 의류에 비해 좋지 않고 한 철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2018년까지의 기사는 여성이 월 소득 25%정도를 품위유지비용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점점 미용목적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자신을 위한 소비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p> <p>현경 :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고 싶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애들이 많은데, 대부분 건강보다는 미용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몸만들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다.</p> <p>- 토론내용</p> <p><남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표준에 여성이 끼워 맞춰지지 않으려면 어</p>							

떤 노력이나 시도가 필요한가? 여성이 남성에게 맞추어진 사회적 표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소비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경민 :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의 일환으로 미투운동과 같이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성 데이터는 사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회적 기준으로 여성에게 강요했던 무언가를 점점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퓨즈서울이 있다. 퓨즈서울은 기존 여성의 옷에 핑크텍스를 걸어내고, 양질의 옷과 여성의 의견이 반영된 옷을 만든다. 더불어 예전 여성의 옷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 예시처럼 여성의 데이터를 산출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주목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만 경험을 통해 여성의 데이터가 소비트렌드로 이어지고 그 소비에 맞추어 생산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 : 남성을 디폴트 값으로 한 사회적 표준에 여성을 맞추는 시도가 계속 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이라 함은 아동이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진 성인의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미디어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제하고 성 중립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한다.

현경 :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슬이 말했던 것처럼 아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정리하는 이들에게 여성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정리하는 교육과 성별분리통계 같은 것을 전반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좋겠다. 그리고 여성이 자동차광고 및 남성이 주축이 되었던 아이템의 광고나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주로 미디어로 방영하면 여성 소비의 트렌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020년 11월 9일

참가자대표 : 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까까까(까다롭고 까탈스러우며 까칠하면서도 까리한 모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김**	학번	2019	이름	차**
	학번	2017	이름	황**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주제 : 여성의 노동</p> <p>- 도서 : <보이지 않는 여자들></p> <p style="padding-left: 20px;">↳ 4장(능력주의 신화 : 고용과 승진), 6장(신발 한 짝보다도 못한 : 불안정노동)</p> <p style="padding-left: 20px;"><젠더와 사회></p> <p style="padding-left: 20px;">↳ 2부 노동(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_신경아)</p> <p>- 토의내용</p> <p>현경 : 노동의 분야에 있어서 과학, 기술, 수학, 공학 등의 분야는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능력주의에 따라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배양접시이다. 남성의 문화가 그 조직을 지배하고 고이게 만든다. 그래서 여성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높거나, 진입하더라도 오랫동안 버틸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있다. 사실상 여성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고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즘의 말로 여성을 철저히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한다.</p> <p>경민 :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여러 감정을 느꼈다. 특히, 성희롱 부분에서 화가 났다. 근데 화와 더불어 조금 씩씩하거나 슬퍼졌다. 이 여성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또한 결국 내가 능력이 있어도 승진을 못하는 이유가 여성이 때문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씩씩했다. 그저 여성인 게 잘못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책에서 어떤 직종이든 앞에 여00으로 취급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대생, 여교수, 여종업원 등 여성을 부각시키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라는 글자 하나를 붙인다는 것만으로 나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아직도 성별에 입각한 차별과 격차는 여전하고 여성의 노동현장은 열악했다. 그 열악함을 통계로 보니 경악스러웠으며, 두려워졌다. 그 차별과 격차를 입증하는 통계 속의 여성1이 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p> <p>이슬 : 스스로 자신을 추천을 하여 승진을 하는 제도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비교하면 여성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다. 즉,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축되어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남성을 평가하는 표현을 두고 볼 때, 같은 형용사라도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라는 말은 남성에게 있어서 자신감 있다는</p>							

것으로 칭찬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드센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변화한다.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겸손함과 낮은 자세, 성규범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등을 배우기 때문에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내용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가.>

이슬 : 조직 내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조직문화는 천차만별로 설계가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인종과 성별,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집단이 사회적 임계점인 30%를 넘겨야 조직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서도 여성이 30%를 넘기는 순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다. 조직을 누가 구성하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조직문화가 달라진다.

현경 : 고위직에 여성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조직의 큰 결정과 문화를 만드는 것은 고위직이다. 고위직의 결정은 영향력을 많이 가진다. 고위직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이 반영된 조직문화로 바뀌거나 적어도 움직임이 생긴다. 그렇기에 고위직에 여성이 많아져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법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경민 :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임금화 및 승진의 제한이 여성의 노동환경과 지위를 낮춘다고 생각한다. 노동환경과 지위가 낮아지면, 여성은 발언권을 잃는다. 발언권이 없는 이는 조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기에 임금을 남성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력의 확보를 통해 여성의 발언권과 발언이 가지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동환경에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단절하려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중심조직문화에서 여성은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아예 역으로 여성을 취약한 분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11월 16일

참가자대표 : 황**